

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제3기 명예지사장 위촉식 개최

안춘배 기자 | 승인 2025.04.04 10:22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지사장 최진)는 지난 1일 농업인 단체장들과 유대 강화와 현장의견 청취를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명예지사장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3기 명예지사장은 김영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진도군연합회장, 강남철 한국농촌지도자 진도군연합회장, 박수희 한국생활개선 진도군연합회장, 김종민 한국새농민회 진도군지회장 등 4명이다.

이날 행사는 명예지사장 위촉장 수여, 주요 업무현황 보고, 주요 현안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명예지사장 4인은 농촌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 지역 농업인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진 지사장은 "앞으로도 명예 지사장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춘배 기자 acbae@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